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 의회소식

본 회의
포토의정
의원논단
주요안건처리
5분발언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신청사소개

CHUNGNAM PROVINCIAL COUNCIL

충청남도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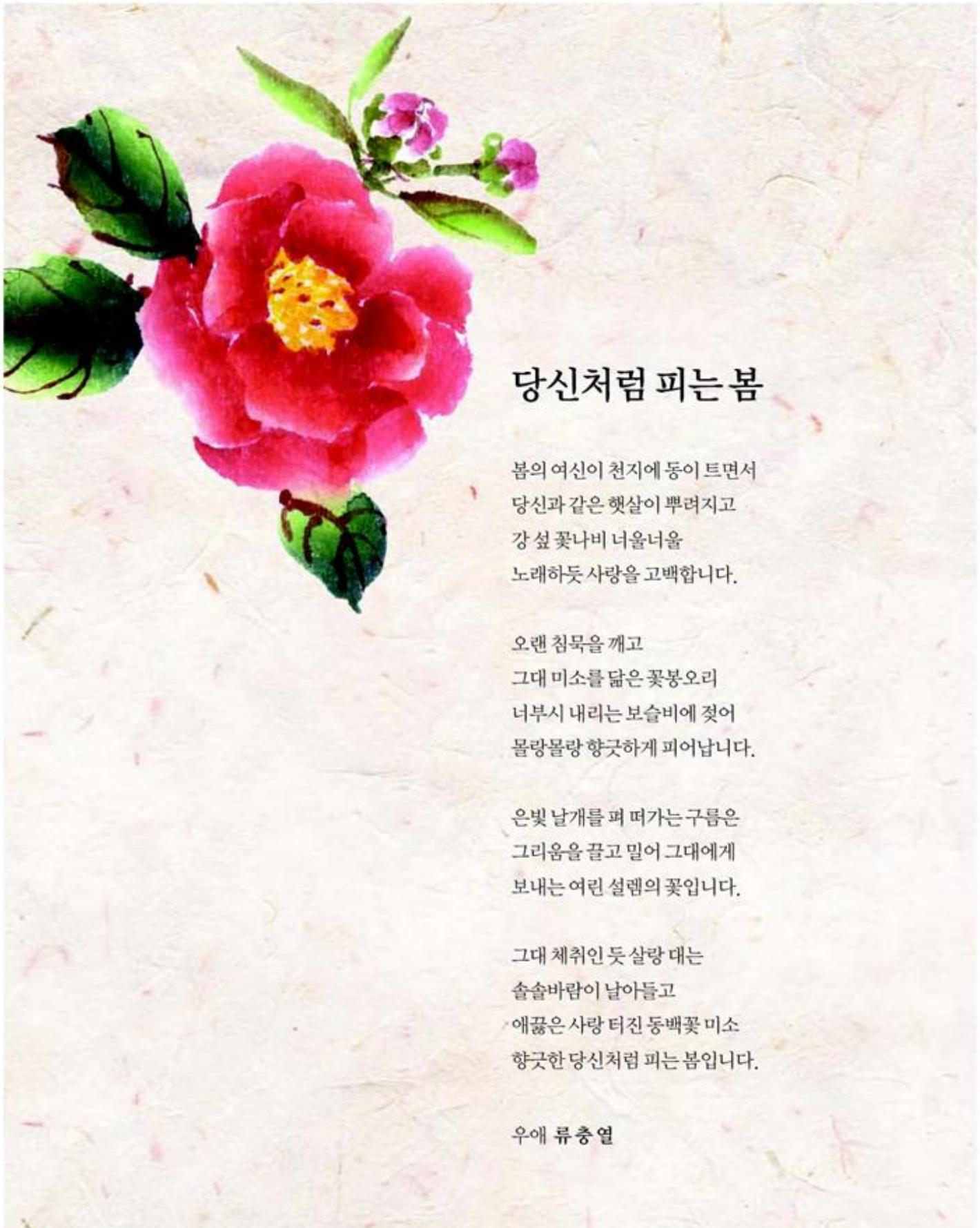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를 클릭하세요
생생한 의정활동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당신처럼 피는 봄

봄의 여신이 천지에 동이 트면서
당신과 같은 햇살이 뿌려지고
강 셀꽃나비 너울너울
노래하듯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그대 미소를 닮은 꽃봉오리
너부시 내리는 보슬비에 젖어
몰랑몰랑 향긋하게 피어납니다.

온빛 날개를 펴 떠가는 구름은
그리움을 끌고 밀어 그대에게
보내는 여린 설렘의 꽃입니다.

그대 체취인 듯 살랑 대는
솔솔바람이 날아들고
애끓은 사랑 터진 동백꽃 미소
향긋한 당신처럼 피는 봄입니다.

우애 류충열

March 2013 제50호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충남의회 소식

CONTENTS

02 인사말씀



10 주요안건처리



03 본 회의

12 5분발언

04 포토의정

16 상임위원회

06 의원논단

28 특별위원회



30 신청사가 궁금했어요

32 신청사 소개

| 발행 | 충청남도 의회사무처

| 편집 | 충무담당관실

| 전화 | 041)635-5102

| 팩스 | 041)635-5009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디자인 · 제작 | (주)디자인 시티

충남 역사의 한 획을 시작하고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발전전략을 마련

존경하는 200만 도민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회는 11회, 11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 및 예산안 등 119건을 처리하였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충청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 12월에는 충남도청사가 도민들의 축복을 받으며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

올해는 도 교육청과 도 경찰청이 이전하여 내포 신도시에서 충남의 역사는 새로 쓰여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더 큰 행복을 만들어 갈 것이고, 내포 신도시가 도민 여러분 행복의 전진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충청남도 의회가 하겠습니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도민 행복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한층 더 발전하는 충남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또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추어 우리 도 차원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충남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으로, 도민의 행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포시대 개막 원년을 맞아 도민들은 그 어느 때 보다 도정에 대한 희망과 기대로 충만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 의원 모두 꾸준히 공부하고, 연구를 통하여 도민들의 기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동료의원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28.

충청남도의회의장 이 준우



“충남도의회, 인터넷 생중계 · 전자투표 시대 개막”

‘각종 안건 전자투표 실시로 의원별 의견표명 명확해져’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등 17개
안건 처리하고 제259회 임시회 마감’

충남도의회(의장 이준우)는 1.28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1차 본회의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종성 교육감으로부터 2013년도에 추진할 새해 업무보고에 이어 임안규 도 기획관리실장과 김성기 교육정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보고받았다.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과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 촉구 건의안 채택 등 모두 17건을 처리했다.

회의진행 방식은 지금까지 해왔던 의장의 “해당 안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라고 이의유무 확인을 묻는 방식에서 탈피하고 각종 안건에 대해 의원이 버튼을 눌러 직접 전자투표를 실시했다.

실제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38명 중 37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표를 표명하는 등 찬반 의견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했다.

도의회는 또한 김홍장 의원 외 19인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중앙부처의 충청권 이전 및 서해안권 유치를 위해 발빠른 행보를 보였다.

한편 충남도의회 제적의원은 총 42명으로 그동안 무소속으로 있던 박찬중 의원(금산)이 지난 2월 4일 민주통합당으로 당적을 변경하여 새누리당 23명 민주통합당 13명 교육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제259회 임시회부터는 본회의를 비롯 충청남도의회의 모든 상황이 생중계 된다.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회의상황을 시청할 수 있으며 개인 태블릿PC나 스마트 폰 등의 모바일 기기로도 시청이 가능하여 의회 회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포토의정

03 2013



이준우 의장과 의회사무처 간부들이 충령사에서 참배하고 있다.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반부터 의회동 1층 로비에서 42명의 의원들과 안희정 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새해 각오를 다지는 신년 단배식도 가졌다.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충청남도의회는 내포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열흘간의 임시회에서는 2013년도에 추진할 도와 교육청의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와 각종조례안 심의가 있었다.



신청사 본회의장에서 첫 본회의를 마치고 도지사와 기념촬영을 했다.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1일 지방도 제635호 확포장 공사(금산 복수-대전) 현장 중 구레터널 봉고현장을 점검했다. 의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봉고현장 곳곳을 점검하고 조속히 보완·보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안전한 공사 재개를 주문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예산전통시장방문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예산읍 소재 예산 전통 5일장 현장을 둘러보고 이용객 예산군 경제통상과장으로부터 시설의 노후화와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한 시장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충남도의회 이준우 의장은 대한적십자 대전·세종·충남지부(회장 민경용)에 특별회비 전달식을 가졌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3년도 제2차 임시회

전국 시도의장협의회가 전라북도의회에서 개최되었다.



이준우의장이 신청사에 입주한 편의업체(꽃집)를 방문하여 격려하였다.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는 해양수산부 충청권 설치촉구 등 17개 안건 모두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충남도의회의 본격적인 전자투표 시대가 개막되었다.

제2서해안 | 평택~부여 고속도로 조기건설 필요성



유병기
충청남도의회 의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875만 대에 이르고 최근 3년간 매년 7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전국 3,600km 고속도로에서는 공휴일과 주말이면 상습적인 정체현상으로 물류비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충청권 고속도로 중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은 1억 8천여대, 서해안고속도로 1억 3천여대, 호남고속도로 1억여대의 차량이 연중 통행하고 있어 상습적인 정체구간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택~부여」를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도로인 제2서해안고속도로 「평택~아산」 18km와 「인주~부여」 68.3km를 조속히 건설하여야 한다.

2011년도 도로공사의 「평택~부여」 교통량 수요 예측 결과에 의하면 2021년도에는 1일 평균 구간별로 최대는 6만 3천 여대, 거리가 중평균은 3만 7천여대가 통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는 홍해 및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충청남도청 이전 등 새로운 교통 수요 폭증에 대비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지역 대표적 선거 공약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시흥~평택」 구간은 올해 3월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충청권 「평택~부여」 구간은 아직도 예비 타당성조사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2012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비를 예산에 반영하

지 않았고, 2013년 상반기 예비 타당성조사 신청(2012. 11)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제2서해안고속도로의 시작은 2008년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에 서해안선 교통 혼잡 해소, 경제성 측면에서 「평택~홍성」 노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어 실행계획에 반영되었고 그 해 9월에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교통량 부담으로 상습정체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충청남도 내륙의 축이며 낙후지역인 부여·청양·예산 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평택~부여」 구간 노선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사실상 확장이 불가한 서해대교의 지·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확충 필요성과 수도권과 충청권간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충청내륙의 국가 간선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1. 1)에 「평택~부여」 구간에 대하여 2020년까지 86.3km에 총사업비 2조 2,457억원의 정부재정 투입 국책사업으로 제2서해안 고속도로 변경노선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내륙 낙후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많은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매년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휴일과 주말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도 상습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어 고속도로의 용량확보가 시급하고, 서해대교 사고발생시 대체 우회도로가 없어 물류 대란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교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평택~부여」 구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은 기존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촉진하여 물류비를 절감하고 「서천~공주」「당진~대전」「청원~상주」 구간 고속도로와 연계구축망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남북축의 보완·대체 기능을 담당하는 대한민국의 심장부로서 전국은 물론 수도권과 1시간내의 생활권으로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세종시, 국제과학비즈니스밸리, 내포신도시 등에 인구유입과 기업유치, 각종 개발요인의 창출 등 경제적 효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따라서 2013년 상반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반영하여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줄 것을 계시년(癸巳年) 새해에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충청내륙고속도로인 「평택~부여」 제2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하고 있으므로 도민들과 함께 커다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있도록 유도하고, 기수립된 항만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대중국을 겨냥한 국가기반시설 유치해야 한다. 인구 10만 명의 신도시의 건설만으로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지역발전 중심거점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포신도시는 신도시건설을 넘어 주변도시와 지역의 상생발전을 통하여 규모의 경제를 갖춘 경쟁력 있는 광역 도시권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내포신도시가 주변지역의 인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블랙홀'로 주변지역을 공동화 내지 쇠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예산군은 이미 인구감소,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화로 지역상권이 악화되어 왔는데 내포시 조성에 따라 도심공동화 현상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포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주변도시와 기능적 보완과 연계를 통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소도을 활성화 방안 마련, 유망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중요성 부각, 예산·홍성지역 중심시가지의 체계적 정비 등으로 인구 및 자본 유출을 억제하고 상권 활성화 촉진하여 내포신도시와 주변 도시간 삶의 질 격차 해소 및 이원적 구조 극복이 요청된다.

최근 예산군은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시너지효과를 제고하며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선도사업'이라 하여, 예산을 도심활성화 특화사업,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사업, 예당저수지 복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 충남도 역시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 위해 행정조직(충남도-예산군-홍성군)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상생발전협의회 구성하거나 도청신도시 주변지역 연계발전 기금을 조성하는 등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 상생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군간 기능분담 및 역할방안을 모색하여 내포신도시는 행정·연구개발 등 도시성장 경제위주로, 예산·홍성 주변 구도심은 서민경제, 문화·역사, 위락·관광 위주로의 역할 분담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포신도시는 서해안권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충남지역의 균

내포신도시권의 상생발전 모색



김기영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충남은 그 동안의 내륙지향적인 공주와 대전 중심 시대를 마감하고 해양지향적인 내포신도시 중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대전 이전 이후 80여년 만에, 도민의 품인 예산·홍성지역으로 이전하여 충남의 중추 행정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내포신도시 건설로 충남인은 정체성을 회복하고 지역발전의 역량을 집약하여 새로운 시대에 농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는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대중국 교역의 전진기지로서 충남 경제의 지구화를 촉진하는 거점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도의 장점인 항만·고속도로·철도 등의 SOC시설과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및 해미공항 민항유치 등을 활용하여 환황해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 경기(평택항 개발), 전북(새만금), 전남(남악신도시 건설) 등과 함께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므로 충남도는 선제적 발전 전략 수립하여, 광역적 시설에 대하여는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형벌전을 선도, 환경해권의 중추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위해선 주변지역의 발전이 필요하고 이러한 내포신도시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및 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가 필요하다. 충남도 역시 내포신도시가 중부권 행정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도내 전역 및 수도권과의 접근성 향상이 시급하다고 보고 신도시 주변 연계 교통망 개선에 매진하여 왔다. 하지만 내포신도시권 광역교통망의 효율적 활용 및 확대에 중요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가 현재 인구와 수요만을 가지고 판단되어 '장래 신설역'으로 예정하여 추진되고 있다.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이 원활한 교통 네트워크 구축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서해선 철도 삽교역은 '장래신설역'이 아닌 '신설역'으로 설계되어 조속히 건설되어야 한다. 충남도는 내포신도시와 주변지역인 예산·홍성군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 거시적 안목으로 고민하여, 성의 있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는 가까이에 있다



장기승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몸 담은지 2년 반이 지났다.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복지란 무엇인가?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하는가? 스스로에게 무언히도 질문을 던져 왔다.

복지의 사전적 의미는 '운택하고 행복한 생활'을 뜻한다. 개인적으로

복지는 따뜻한 기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재정의 탓으로만 돌린다면 서민을 위한 복지는 멀어질 것이다. 지역의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복지정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민초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여간은 녹록하지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이고, 도내 독거노인이 8만명을 넘어 노인의 빈곤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상위 계층도 2010년 12천명에서 2012년 22천명으로 2년사이 약 2배가 증가하여 빈곤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령사회의 가속화이다. 한국의 평균수명이 2000년 76세에서 2010년 79.6세로 10년동안 3.6세가 증가하였으며, 도내 노인인구는 2000년 215천명(11.2%)에서 2011년 315천명(15%)으로 10년사이에 10만명이 증가하였다.

셋째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다. 2010년 한국의 출산율 1.22명이고, 충남의 출산율은 2011년 기준 1.5명으로서 OECD 평균 1.71명보다 하회하여 향후 경제활동 인구가 현저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넷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정책이 시급하다. 충남의 장애인은 2005년 9만 2천명에서 2011년 13만 1천명으로 약 4만명이 증가하였으며, 영화 "도가니"에서도 나타났듯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다섯째 충남의 자살률은 전국 2위로서 10만명당 44명이 자살하여 전국 평균 31명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 등 청소년의 자살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남도 의회(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이와같은 일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201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저출산·고령화 대응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민의 건강과 의료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1년에는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생산 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와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를, 아동·노인·장애인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2년에는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도민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에 대한 예방대책을,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과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당장 피부에 닿을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호흡하며 밤로 뛸 계획이다. 어느 도내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희망울림"이라는 밴드가 연주하는 음악회에 간 적이 있다. 그들이 연주하는 정상급 수준의 실력에 기슴이 뭉클하면서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하나로 어울어져 멋진 화음을 낼 때까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땀과 노력을 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었기에 더욱 힘찬 박수를 보냈다.

그때 생각했다. 모두가 원하는 복지는 바로 이런것이 아닐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하나가 되어 멋진 화음을 낼 수 있듯 이 부자와 서민이, 청년과 노인이, 남성과 여성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편견을 없애고 이해하며 모두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배웠다.

모두가 잘사는 복지사회는 결코 멀리에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다.

지가 정점에 이르는 해이고 그 뜨거운 열기가 행동으로 이어져 혁명, 폭동,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둘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우리나라를 새 대통령을 뽑았고 주변 국가들 또한 크고 작은 많은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 충청남도도 80년 한밭의 시대를 마감하고 대양의 내포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희망찬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역의 갈등과 세대간 갈등, 빈부의 갈등까지 많은 갈등상황이 도처에 도시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해결해야 할 과제를 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뱀의 해에 일어난 역사 속 세계적인 일들을 되새겨 보면 1989년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벌어졌고 2001년 미국의 9.11사태가 발생했지요.

우리가 맞이한 올 2013년도 먼 후일 경제라는 커다란 소용돌이 속에서 세계속의 우리나라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으며 시급히 해결되어져야 할 사안중에 대학교 반값등록금과 일자리 문제, 부동산 시장 붕괴가 있으며, 날로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서민경제의 몰락과 국가부채와 가계부채의 증가로 공기업 민영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내실을 기하는 사회전반의 통합 상생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 이기주의가 우리사회의 저변에 팽배해있고 힘과 빼어나는 사회 부조리가 만연해 있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화합과 통합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때 도덕과 상식, 원칙이 통하는 공정한 사회가 바로 세워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의 곳곳에서 비리가 판치고 형평성이 어긋날 때 사회는 폭동과 분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과 정의를 바로 세워 새로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 변화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신 바 모든 소원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며



김종문
충청남도의회 의원

2013년 계사년(癸巳年) 신년은 흑사(黑巳)띠의 해입니다.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申), 임(壬), 계(癸)의 10개로 되어 있는 천干에서 수(水)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계사년의 사(巳)는 12개로 되어 있는 지지중 뱀에 해당되며 불 에너

제259회 임시회 주요안건 처리 현황

총 17건

(조례안 12, 규칙안 1, 변경안 2, 건의안 1, 규약안 1건)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의안 전문은 [의회홈페이지](http://council.chungnam.go.kr)(<http://council.chungnam.go.kr>) 의정활동 → 의안 → 의안검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정 조 레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명성철 의원외 9인 발의)제 안 자: 명성철, 유병돈, 맹정호 의원
처리결과: 수정가결

| 주요내용 | ① 충청남도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설치와 위원의 중복 위촉 방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정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내실을 도모 ②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위원의 위촉·위촉해제·제한 및 청렴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 수립, 실비보상 등 규정

제 정 조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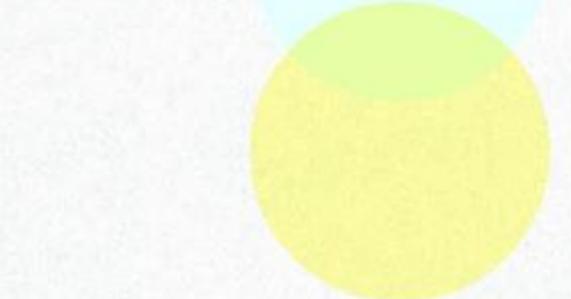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제 안 자: 도지사
처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② 도민불편사항·공무원비위·부조리 제보·건의·와 감사참여 등 역할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성·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실비보상과 우수감사관에 대한 표창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개 정 조 레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리결과: 원안가결

| 주요내용 | ① 도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의 충실히 수행 및 전자회의 운영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자 회의규칙을 개정 ② 전자투표 시 의장의 찬성 또는 반대 표결 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출석이 확인된 의원은 표결에 참석, 특별한 경우만 기립 또는 거수로 표결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



건의안

해양수산부 충청권설치 촉구 건의안
(김홍장 의원외 19인 발의)제 안 자: 김홍장 의원
처리결과: 원안가결기처의
타리안

-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홍장의원 외 9인 발의)
-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 충청남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원을 위한 보상주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따른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관리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도지사 제출)
- ⇒ 2013년도 제1회 도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
-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안(도지사 제출)
- ⇒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 ⇒ 충청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 충청남도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 ⇒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
(충청남도 도청이전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5분발언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3. 1. 28)



‘예산·홍성’
통합은 주민투표로

금산 한·양방
도립병원 설립을

서두른 도청이전
공사가 심각한
하자발생 불러와!

내포신도시 조기정착을 위한 공동노력으로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이 되어 충남발전의 동력으로 삼자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예산 이전 검토, 둘째,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역 신설을 도정의 핵심문제로 다뤄줄 것. 셋째, 지방행정체제개편위가 일방적으로 확정한 예산·홍성 강제 통합안에 대해 도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 군민들로부터 호나영받을 수 있는 통합안을 마련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도청이 이전함으로써 이방인이 된 금산군민들의 분노와 허탈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충남도가 금산군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실증적인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 금산은 인삼·약초의 고장으로서 한약유통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군민들의 바람은 국내·외 체류·체험관광과 연계한 한·양방 통합 도립병원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비 예산은 도지사께서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도청이전을 너무 서두른 탓에 신청사에 하자가 발생하고, 정주여건이 열악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행착오를 최소화 했어야 했지만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벌써부터 신청사에 누수가 발생하고 계단이 허물어지며, 도색이 변색되는 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철저한 하자 보수를 통해 신청사가 내포신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내포신도시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바란다.

/ 고남종 의원 /
예산



/ 박찬중 의원 /
금산



/ 조치연 의원 /
계룡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어민
피해대책 수립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하여 농어민 피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FTA 체결에 대해서 충남도가 이익되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과의 농산물 분야 무역에서 원예 및 축산류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품목별로 집중적인 피해 규모 산출과 대응방안 연구 등 충남도의 역할정립과 중앙정부의 간의과제를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발굴하여 우려되는 부분인 농어업에 대하여 품질 및 유통 혁신 등을 통하여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 기후
대응 매뉴얼 필요

지난 한파로 인하여 집계된 도민의 피해액이 645농가에 42억원 이상이며 집계 안된 것까지 포함한다면 엄청난 피해액이 발생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파와 폭설, 고온현상 등 이상기후에 의하여 우려해 문제가 된 제도를 개선하고 측근 및 연고 중심 인사관행에서 벗어나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고질적인 관행으로 이어온 인사비리를 발본색원하고 재발방지 마련을 위해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교육계 비리
발본색원, 재발방지
위한 조사특위 구성



/ 서형달 의원 /
서천



/ 이도규 의원 /
서산



/ 임춘근 의원 /
교육



5분발언

제2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3. 2. 6)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촉구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역내 금융수요 발굴을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의 원활한 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은행 설립을 촉구한다. 충청남도의 금융지원 저조 추세는 영세 자영업자를 제도권 금융의 소외계층으로 전락시켜 제3의 대부업체 대출 증가로 금리부담이 가중되어 심각한 자금난에 처하게 되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은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서 공약 사항이고, 금융당국에서도 충청권의 경제규모 분석을 통해 은행설립을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으므로 이제는 전 도민들의 열원을 담아 대한민국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역으로서 충청권 지방은행설립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 이광열 의원 /
아산



내포의 축 예산 신례원 도심지에 방치된 구 충남방적 해결을 촉구하며

본회의에서 내포시대의 죽인 예산 신례원 도심지에 흉물화 되어 방치된 구 충남방적에 관한 해결을 촉구한다. 안화정 지사에게 그동안 두 차례 이상의 도정질의와 추가 보충질의를 통하여 해결을 촉구했고 지난 10년간 누구도 해결을 못하였기에 추진에 대한 굳은 결심을 고백했다. 아울러 도청이 소재한 내포의 중심 예산의 도심지 한복판에 발암 물질인 폐 슬레이트 건물 폐공장 처리에 관한 문제이기에 도지사가 SG그룹 이의범 회장을 다시 한번 만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물꼬를 터주기를 건의한다. 구 충남방적 문제에 언론 방송의 협조를 구하고 이의범 회장은 SG그룹의 변영을 위한 장소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

/ 김용필 의원 /
비례



5 Minutes Speech



노인공경은 말부터 바꾸자. 노인을 어르신으로...

세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적인 상황에 「노인」이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공공분야에서 우선 사용하여 세대간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기여를 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어른을 공경하며 삶의 지혜를 배우고 어르신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생활하길 바란다. 집행부는 도청의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통해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충남 교육청에서도 바른품성 5운동을 통해 노인 공경 분위기 확산에 한층 더 노력하길 바란다. 도청에서는 노인장애인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바꾸고 교육청에서는 노인을 어르신으로 바꾸어 학생들을 교육시켜 노인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공경 풍토를 할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부터 노인을 어르신으로 바꾸어 칭하기를 적극 건의한다.

/ 이기철 의원 /
아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충남형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전국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모범사례지역으로 올산 북구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소개하고, 도지사에게 충남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충남형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충남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책은 단순한 유통센터가 아닌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립하고, 학교에 지역의 친환경식재료 공급과 지역산 생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의 품질기준 확립·제공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이 성공을 이루고 이를 통한 충남형 로컬푸드 활성화가 달성을 수 있도록 기대한다.

/ 조이환 의원 /
서천





▣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0회 의사일정 협의건과 본회의에 전자투표실시에 따른 충청남도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하고 7건의 연구모임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 한 후 의회사무처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제260회 의사일정 승인의 건과 충청남도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원안가결되었다.

충청남도의회 학교 및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활용을 위한 연구회 등 7건에 대하여 연구과제 및 연구목적에 맞게 운영하였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충청남도의회 학교 및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활용을 위한 연구회는 생산자 조직과 사전 계약재배 공급을 활성화하고 급식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공산품을 지역농산물과 연계할수 있는 구체적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했다.

충청남도의회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연구회는 다문화가정이 안고있는 가족간의 갈등예방과 문제해결능력강화로 다문화 가족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국제결혼가정 사전교육 내실화, 충청남도와 지자체 차원의 가족교육의 중요성 홍보, 다문화 사업진행시 산발적인 중복지원 방지, 결혼이주여성 쉼터 확대 등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의회 지방교육자치제 제도개선방안 연구모임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



해 교육감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다른 날에 실시하고,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과부와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가져야 할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충청남도의회 지역아동센터 연구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에 대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워크숍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는 2012년 연구모임 운영결과를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하여 바람직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 의회사무처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상회 의회사무처장은 효율적인 회기운영 지원, 행정사무감사실시, 지역현안 촉구 건의 및 특위운영 지원, 도민과함께하는 열린의정 홍보 등의 2012년도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또한 2013년도에는 도민과 함께하는 인본의정, 의·도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의정 및 현장에서 답을 찾는 깨어있는 의정을 중점으로 추진할 것을 보고하였다.

유병국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김용필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도민의 행복이 증대 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



▣ 기획관리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충남 NGO 센터 및 시민단체 설립 지원 제고와
도정 주요통계 중복문제 개선 촉구**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충남NGO센터 및 시민단체 설립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도가 유교문화권에 역점을 두더라도 내포문화권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및 충청남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을 위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 **김정숙 의원(비례)**은 충남 NGO 센터 및 시민단체 설립지원과 관련 현재 NGO 단체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지원과 수익사업에 의존하고 있어 자칫 자율성 저하로 관변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심사숙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명성철 의원(보령)**은 도내 서산 AB지구, 남포부사지구의 경우 인공해안선으로 매년 50cm 이상 상승하고 있어 해일발생시 백수피해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도 정책 총괄부서인 기획 관리실에서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김용필 의원(비례)**은 대전 선화동 구 도청 별관에 확장이전을 추진중인 충남학생기숙사 건립이 예정대로 추진돼 놓어민들의 자녀들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것을 주문하고 도의회 의원들이 각종 연구모임 결과를 토대로 나온 결과물이 실제 도정에 반영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었다.

● **김종문 의원(천안)**은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 감소분에 대한 대책과 실제 운영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예산조기집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 **맹정호 의원(서산)**은 현재 내포문화권사업이 미진한 상태에서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덧붙여 추진하면 내포문화권사업

▣ 자치행정국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사건학시 자체 방문시스템 도입과
현 청사 출입제한 운영방법 개선촉구**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서 도민들이 청사건학시 자체 방문시스템 도입과 현 청사 출입제한 운영방법이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맹정호 의원(서산)**은 많은 도민들이 충남도청 내포시 견학을 원하므로 도에서 관람루트를 개발하고 전담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도 청사건학을 보다 시스템화 해줄 것과 현재 도청사 출입제한으로 인한 방문객 불편해소를 촉구했다.

● **명성철 의원(보령)**은 도청공무원들이 내포시로 이전해 근무함으로써 매월 60~100만원까지 소요비용 발생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포시 공무원들의 조기정착을 위한 이주수당의 조기 지원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도내 사회단체보조금에 매년 10억원 이상 의무적·관행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도정과 도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자부담 비율을 차등적용 하는 등 보조

금 지원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종문 의원(천안)**은 2013년도 지방세 세수목표가 1조 900억원으로 1.4%로 증가했는데,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며, 안정적인 세수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물었다. 또 공직분위기 쇄신과 행정혁신을 위해 직원들에 대한 전화예절 등 기본교육을 강화해 줄 것과 동네자치의 경우 농촌지역은 공동체가 가능하나 도시지역은 헬스, 요가 등 문화활동에 치우치고 있어 도시지역에 맞는 동네자치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례안 처리와 관련 명성철의원이 발의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중 정당원 위원참여 제한조문은 정당원의 행정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어 삭제·수정하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조례 일부개정안」 등 나머지 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 충남발전연구원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도민감사관 직권남용 방지대책 수립 촉구
충발연의 관행적 연구방법 개선대책 필요성 제기**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유병돈) 2013년도 감사위원회와 충남발전연구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감사관제의 직권남용 우려에 대한 대책과 충발연 연구원들의 연구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김종문 의원(천안)**은 우리도의 2011년도 청렴도는 12위, 2012년은 4위로 전국 최초로 개방형 도민감사관제를 도입한 성과로 보여지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었다.

● **명성철 의원(보령)**은 우수 도민감사관에 대한 포상이나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행정업무가 전자화되고 있는 만큼 감사시스템도 이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맹정호 의원(서산)**은 우리도 전국 최초로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후 시군 직원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달라졌으나 반대로 감사위원회 처분 수위가 높아짐으로써 시·군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감사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감사처분 수위를 조절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정숙 의원(비례)**은 3농혁신, 행정혁신 등이 도정에 제대로 반영됐는지와 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면서 개선된 점은 무엇이며, 감사기법과 시스템개선 필요성을 주문했다.

● **김용필 의원(비례)**은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찾아가는 곳이 민원실인데 감사위원회에서 직무감찰 할 경우 민원실에서 처리한 내용의 합법적 처리여부에 대한 감사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제 조례안과 관련 의원들은 도민감사관 위원들이 신분증을 사칭해 부당한 개입이나 자료요구 등 직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주문하고,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 **명성철 의원(보령)**은 충발연 연구원들이 관행적으로 일하는 것은 아닌지와 도민들이 충발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으며,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연구정책이 없다며 혁신을 통해 충남도정을 실질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 **김종문 의원(천안)**은 충발연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을 보면 장밋빛 청사진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며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사례가 무엇인지 물었다.

● **맹정호 의원(서산)**은 우리도 발전소 환경피해 조사 연구와 관련 환경피해조사를 행정구역단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피해는 시군경계로 퍼지는 것이 아니므로 발전소반경 5km 이내로 조사해야 하며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을 위한 화력발전세 징수금액이 실제 광역오염실태 측정에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충발연에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연구성과가 도정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있는지와 충발연과 공무원교육원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용필 의원(비례)**은 도민행복을 위한 연구성과 결과와 연구원들이 실제 연구활동에 필요한 견문을 높이며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원들의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내포시대 첫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29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내포시대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도민에 대한 문화예술의 향유 증대와 도내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문했다.

■ 장기승 위원장은(아산) 기호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당위성 개발 및 공감대 확산과 공세리 성당정비사업, 온양행궁 복원사업,

윤보선 생가 정비사업을 각각 특색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 김장옥 의원(새누리 비례)은 경쟁력 있는 충남관광 브랜드 사업과 관련, 충남만의 특화되고 테마있는 관광지 개발을 주문했다.

■ 이도규 의원(서산)은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 사립 작은도서관에도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도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은 안면도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확고한 의지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복지보건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신속히 대응해야!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30일 의료원과 복지보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내포시대를 맞이하여 의료원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새정부 출범에 따른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공주의료원 업무보고에서 인건비 비율이 8억원 상승 이유가 무엇이냐" 라며 물고 적자 해소를 위해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 조치연 의원(계룡)은 "공주의료원 신축과 관련하여 건설업체 나눠먹기식 입찰은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이에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 박찬중 의원(금산)은 "천안의료원은 환자의 80% 이상이 천안 시민인데 충남도에서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삼고 4대 의료원에서 시·군 자치단체장에게 예산지원 건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 김장옥 의원(비례)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했던 병원식에 대해 흰 쌀밥보다 건강에 도움 되는 잡곡밥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환경복지국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부상선수 관리 철저와 도민체전에 도민 참여 방안 마련 주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31일 충청남도 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 환경복지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도민의 체력증진과 충남의 체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히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충남장애인체육회의 아산 빙산체육

관 사용 어려움에 대하여 장애인체육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아산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 김장옥 의원(비례)은 "선수가 부상당했을 때 철저한 관리와 치료를 통한 선수 보호와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들만의 별도 교육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윤미숙 의원(천안)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예산으로 장애인체육을 활성화시켜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할 것"을 주문했다.

■ 이도규 의원(서산) · 유익환 의원(태안) 2012년 전국체육대회 성적 부진을 지적하고 2013년도에는 충남 체육인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최근에 발생한 체육인 폭행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도 ·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다문화가족 역량강화 마련 촉구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4일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와 다문화 가족의 역량강화를 주문했다.

■ 김장옥 의원(비례)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사업과 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1366전화 등 여성을 위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여성정책개발원 인력채용을 1년 단위로 채용하는 것은 고용불안에 따른 생산성 및 근로의욕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은 "다문화가족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해결해야 될 사항이므로 사회통합을 위해 여건 조성, 관심도 제고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 윤석우 의원(공주)은 "청소년 국제교류팀방 예산과 관련 베트남, 라오스 등은 벤치마킹 보다는 관광 성격이 짙고 실과별

증복된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개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고구려, 발해에 대한 국제교류팀방은 청소년의 역사인식을 깨우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 판단되므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박찬중 의원(금산)은 최근 청소년 · 여성 폭력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 · 여성 문제에 대한 과감한 대처와 국제결혼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혼을 감소시킬 방안으로 종교활동을 통한 모임, 상담활동 등을 통해 이혼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여성정책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연구 촉구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장기승)는 5일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 장기승 위원장(아산)은 여성정책개발원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위하여 전문지식과 소양교육을 강화 시킬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연구원들의 계약기간이 너무 짧아 많은 문제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 김장옥 의원(비례)은 슬로시티 등 마을마다 특성화하여 여성농업인들이 중요성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소외 받는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여성농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마을 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를 요구했다.

■ 윤석우 의원(공주)은 어린이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예산과 장소가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므로 예산확보 및 교육장소 확보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 박찬중 의원(금산)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 경제통상실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1월 29일 경제통상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으로부터 시설의 노후화와 주차장, 화장실 등 노후한 시장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농수산국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핵심 농정과제는 농가소득안정과 유통구조 개혁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1월 31일 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 김충열 부위원장(청양)은 중소기업 수출지원 내실화를 위해 해외사무소에 독자적인 무역 사절단을 운영할 수 있는지와 농공단지 화생프로그램 추진사업 중 농공단지 지원에 따른 인력 수요가 가능한지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질문했다.

▣ 고남종 의원(예산)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따른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다.

▣ 김득웅 의원(천안)은 지역노사안정 체계 구축을 위하여 아산의 유성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추진상황과 도민 소비품목 선정 종류가 무엇이며 상생산업단지 조성 추진현황을 물었다.

▣ 송덕빈 의원(논산)은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에서 현재 낙후된 지역의 시설에 대하여 도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이에 따른 관리를 도내 시장상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현대화 시설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조길행 의원(공주)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도내 서비스업까지 지원확대를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 조이환 의원(서천)은 에너지 종합개발계획 사업중 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을 접목할 수 있는지와 지역자원과 연계한 협동조합 설립 현장 교육을 도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해 주도록 당부했다. 또한, 예산을 소재 예산 전통 5일장 현장을 둘러보고 이용억 예산군 경제통상과장

▣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올해에도 우리가 풀어 나가야 할 핵심 농정과제는 농가소득안정과 유통구조 개혁, 한·중 FTA 문제이며, 이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이라는 어젠다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고 하면서 농가소득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경종, 축산업 등 품목별 농가소득상황에 대해 따져 물었다.

▣ 김충열 부위원장(청양)은 창업농업경영인 선발기준, 동물복지형 축산업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친환경농산물 직판장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 김득웅 의원(천안)은 전체예산 대비 농업부문 예산이 15.7% 정도이고 매년 비슷한 수준인데, 3농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농업예산이 크게 증가하지 못한 점은 아쉽고, 최소한도 인구 대비 농업인구 구성비율 이상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덕빈 의원(논산)은 규산질비료 등의 토양개량제가 사용되지 않고 마을어귀에 방치되어 있다고 현장의 부적정을 지적하고 겨울철 영농교육현장의 사례를 들어 각종 농업인단체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종화 의원(홍성)은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위해 단지를 조성

하는데,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전과 함께 우선 농가소득증대가 되어야 함에도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생산물에 대한 판로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 서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및 농업기술원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서해안 유류사고 소송대비 적극적 대응 주문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2월 4일 서해안유류사고 지원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등의 리더를 위한 교육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 조길행 의원(공주)은 도농교류 활성화사업 신규 18개사업에 대한 내용과 농촌지역리더 양성사업의 중복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병해충 예찰·방제에 있어서 갈색날개매미충 등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데, 방제단 설치 등을 통해 방제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충남신용보증재단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신용등급이 낮은 신청자 구제책 마련 촉구

충청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는 5일,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 이종현 위원장(당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신청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무엇인가 질문하고 현실에 맞게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 김충열 부위원장은 시군별 신용보증현황에 따르면 청양군 이용율이 현저히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거점이 없는 지역에 출장 이동하여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마케팅 방안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 고남종 의원(예산)은 기본재산 조성에서 기초단체의 출연금 현황과 관련해서 기본재산이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촉구했다.

▣ 송덕빈 의원(논산)은 신용보증재단이 서북부에 치중되어 있어 보증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청이전에 따라 소외받고 있는 논산, 금산, 계룡 등 동남부권에도 소외받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 이종화 의원(홍성)은 기한연장센터 등의 조직체계 운용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데 다만, 서민대상 보증의 확대로 전년도 보다 당기 순이익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 균형을 잘 맞추어서 업무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 조길행 의원(공주)은 보증액이 증가함에도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대책을 질문했다.



건설소방위원회



▣ 건설교통향만국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서해안시대와 미래를 준비한 조화로운 지역개발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건설교통향만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김홍록 건설교통향만국장으로부터 균형적 국토 관리와 친환경 공간 조성,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주거복지 향상, 전략적 교통인프라 구축과 안전한 도로, 친환경 하천 조성과 자연재해 예방·복구, 동북아 교역관문의 향만시설·철도망 확충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디지털화 실현에 진력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하였다.

■ 권처원 의원(천안)은 천안시 국도1호선 교통량 폭주로 우회도로(천안 번영로) 사업 추진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미진한 사유를 따져 묻고 조속한 추진을 주문하였다.

■ 김문권 의원(천안)은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시 기존 대지보다 높게 설치되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한데 향후 시내권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시 전용도로의 필요성, 도시환경과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전용도로 개설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을 당부하였다.

■ 김기영 의원(예산)은 서해안 고속도로 교통량 분배와 충청권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평택-부여간 제2서해안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이 필요한데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다.

■ 유기복 의원(홍성)은 장항선 2단계 개량사업으로 복선화 사업과 국도 21호 사업 추진이 미흡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였다.

■ 이광열 의원(아산)은 시·군별 오지마을에 대한 버스운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산시의 마중버스를 검토하여 도내 오지마을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장애인 저상버스의 운행을 수요 응답형 체제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운행을 강조하였다.

■ 유병국 의원(천안)은 충청권 공주·부여보 완공 후 수질 악화와 부실공사에 따른 우리도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 박문화 위원장(논산) 내포시대 개막 원년을 맞아 도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고 큰 만큼 건설교통향만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주문하였다.

▣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환황해권 중심도시 건설 및 충청남도 균형발전 선도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월30일 충남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 권처원 의원(천안)은 내포신도시의 개발 추진이 미흡한 이유는 충남개발 공사는 사업성이 좋은 요충지만 개발하고, LH공사 등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하여만 개발하고 있어 전체적인 사업추진이 미흡하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분양가 인하 등의 파격적인 대안을 주문했다.

■ 유병기 위원(부여)은 현재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국비확보 추진 특별법 진행 상황이 지연되고 있는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국비를 확보할 것과 신청사 누수발생 등 부실시공의 문제점은 별도의 특별 위원회 구성여부를 건설소방위원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영 의원(예산)은 건양대학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내포신도시 유치 계획은 공급단가 맞지 않아 지연되고 있는데, 인접 당진시에서 충남대학병원을 유치하고 홍성의료원을 내포신도시 거점병원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은 도민에게 혼란을 주고 명품 내포신도시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유치계획 신종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문권 의원(천안)은 공동주택 극동, 효성, 보금자리 주택이 계획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사업체 관계자들을 의회에 출석시켜 계획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확답을 받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 유기복 의원(홍성)은 내포신도시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단지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으로는 부족하므로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도로, 철도 등의 다양한 정주여건을 마련하고, 홍성, 예산 주변의 산과 저수지 등과 연계한 주민 편의시설 종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유병국 의원(천안)은 내포신도시 주 진입도로 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되어 터널공사를 할 경우 약 3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한데 기재부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우회도로로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4년여 공사기간 늘어나 내포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므로 기존 터널공사를 재개하고 국비를 확보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 해안유류사고지원본부 및 농업기술원

원인분석 등 후속조치와 조속한 재개 촉구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일 지방도 제635호 확포장 공사(금산 복수-대전) 현장 중 구례터널 붕괴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의원들은 시공사와 감리사로부터 붕괴현황을 보고 받고 붕괴 사고가 외부 원인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공상 문제나 부실 감리 때문인지에 중점 질의했다. 의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붕괴현장 곳곳을 점검하고 조속히 보완·보강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안전한 공사 재개를 주문했다. 구례터널 붕괴는 금산군 복수면 구례리 일원을 통과하는 터널로 시공 중 지난해 11월 중 100여m가 함몰되었고, 현재

대한토목학회에 균열 원인 분석과 각 분야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계획을 수립 조치할 예정으로 있다.

▣ 종합건설사업소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금산군 복수 구례터널 붕괴사고 늦장 보고 질타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종합건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내포신도시 도청 진입도로 터널공사의 즉각적인 재개와 금산군 복수면 구례터널 붕괴사고가 도마위에 올랐다.

■ 유병국 의원(천안)은 "도청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문화재 발견 이후 터널(2014년) 또는 우회도로(2018년) 설치 결정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내포신도시의 조속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터널공사를 재개 하여도 내년 6월까지 공사완료가 어려우므로 사급히 지휘부에 보고하여 터널공사가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유병기 위원(부여)은 복수~대전간 지방도 635호 확포장공사 중 작년 11월 발생한 금산 구례터널 붕괴사고에 대하여 현재 토목학회에만 의존하여 원인조사를 하고 있는데도 자체의 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원인규명 조사에 참여 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조사결과 사고원인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일 경우 충남도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 및 이에 더해 이중으로 사업비를 부담하여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다.

■ 김문권 의원(천안)은 "구례터널의 붕괴원인은 직선 구간에 대하여 산을 관통하는 터널공법을 선택하지 않고, 선형구간의 산과 산이 접하는 구령부분으로 터널이 통과하도록 설계하여 양쪽 산의 토사 압력이 터널 붕괴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설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 유기복 의원(홍성)은 "거울철 강설시 도로의 가로수 및 포장도로의 보호 등을 위해서 친환경 재설재를 사용할 것"을 주문하고, "소방서 등 공공청사 신축시 효율적인 부지이용을 위해 추가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다.



■ 충청남도교육청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충남지역 일반고 자퇴율 전국 1위에 대한 대책추궁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충청남도교육청의 3개 조례안의 처리와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했다. 교육위는 충청남도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심의 했다. 교육위는 또한 교육정책국과 교육행정국(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포함)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충남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자퇴율이 전국 1위인 점을 지적하고 인성교육 강화 등 향후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조남권 의원(교육5)은 일선 학교 공사계약 추진 시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인 해결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임춘근 의원(교육3)은 비정규직인 학교회계직원 관리와 관련하여 비정규직을 학교에서 부당하게 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대해 지적하고, 비정규직을 총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편성 등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2013년 직속기관 업무보고

충남교육청 직속기관 운영 활성화 및 특별 프로그램 개설 촉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충남외국어교육원과 충무교육원에서 열린 2013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6개 직속기관의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갖고 직속기관의 운영 활성화에 대해 요구했다.



서형달 의원(서천)은 충남교육연수원과 충남외국어교육원의 획일화된 연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라고 지적하고 시대적 환경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교원 및 학생들의 역량강화에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외국어교육원이 영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교육원으로서의 이름이 무색하다"고 말하고 다양한 제2외국어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환 의원(천안)은 충남교육연수원의 외부강사 선정기준의 객관적이지 못한 항목들이 있다"고 말하고 공정하고 우수한 강사유치를 위한 교육연수원의 외부강사 선정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석곤 의원(금산)은 2012년도 학생수련원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관 직무분석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기철 의원(아산)은 정식 학교로 전환한 여해학교의 3월 개교에 따른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공립형 대안학교인 여해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 교육위 조남권 의원(교육5)은 충남교육청 직속기관들의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비해 감액된 내용이 많다라고 따져 물고 감액으로 인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2012년도에 학부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아체험활동 만족도 조사를 201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곤 의원(금산)은 충남학생임해수련원의 '채움과 나눔의 특수학교 해양체험' 특색사업 예산이 100만원 밖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적은 예산으로 특수계층 학생들의 수련활동 지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묻고 각종 사업 추진 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도록 요구했다.

김지철 의원(교육1)은 "충남연구정보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직원 업무경감지원 서비스의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일선 현장의 교직원의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기철 의원(아산)은 남부 및 서부평생학습관이 위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학부모나 학생에 대한 지원이 미치지 못할 것을 우려하며 소재지 외의 관할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 무엇이냐고 묻고, 소외된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환 의원(천안)은 충남연구정보원의 작년 10월에 열린 진로진학박람회 운영 시 원거리 지역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 서해안 유류사고지원 특위 개최

충청남도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명성철)는 3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 본부로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피해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 **명성철 위원장**은 지난 1월 16일 서해안 유류사고에 대해 사정판결 한 것에 대해 의미는 있지만, 피해 주민들은 재판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엄밀히 분석하여 피해 주민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강철민 의원(태안)**은 피해민들은 여러 측면에서 불만이 많이 있다. 소송 과정에 발생한 인지대 등 비용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라면서 피해민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지만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당부했다.

◆ **유익환 의원(태안)**은 보상 받지 못하는 피해 주민들도 많은데 특별법 등으로 재판에 참여 못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에 대하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 **맹정호 부위원장(서산)**은 사정재판을 보면 피해 보상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액이 아니다.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 문제를 검토하여 사정재판의 보상액이 적게 산정된 것에 대하여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16일 서산지법의 사정재판에 따르면 4조 2,271억 원의 피해 신고 대비 7,341억 원(17.37% 해당)이 결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충남은 3,440억 원(전체의 66.4%)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제 기금보다 4배 가량 많은 수치이기는 하나, 대다수 주민들은 많은 실망을 하고 있다. 또한 수산분야(3,676억 원)에 비하여 비수산분야는 462억 원, 방제분야 1,044억 원으로 국제기금의 판단과 비교 소폭 증액에 그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금 등으로부터 손해 배(보)상을 받지 못한 누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충청남도와 세종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개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간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2월 6일, 제1차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윤석우 의원(공주)을 부위원장에 김득웅 의원(천안)을 선임했다.

◆ **윤석우 위원장(공주)**은 "충청남도와 세종시간 상생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 나아가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를 포함 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다자간 상생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우 위원장



김득웅 부위원장

■ 윤리특별위원회 개최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2월 6일 제1차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김장옥 의원(비례대표)을 부위원장에 이광열 의원(아산)을 선임했다.

◆ **김장옥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동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능을 함으로 우리 위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공정한 직무수행과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장옥 위원장



이광열 부위원장

"충청남도 신청사가 너무 궁금했어요"?

2013. 2. 6까지 충청남도청 신청사를 견학하신 분들입니다.
도청 아곳 저곳을 둘러보시며 기념 촬영을 하셨습니다.

1.11



◆ 청양군 비봉면 주민일동

1.18



◆ 논산시 주민

1.21



◆ 태안군 주민 일동

1.25



◆ 보령시 청라면 음현리 주민

1.18



◆ 기독교 충남 노인회

1.22



◆ 청양군 민족통일협의회 회원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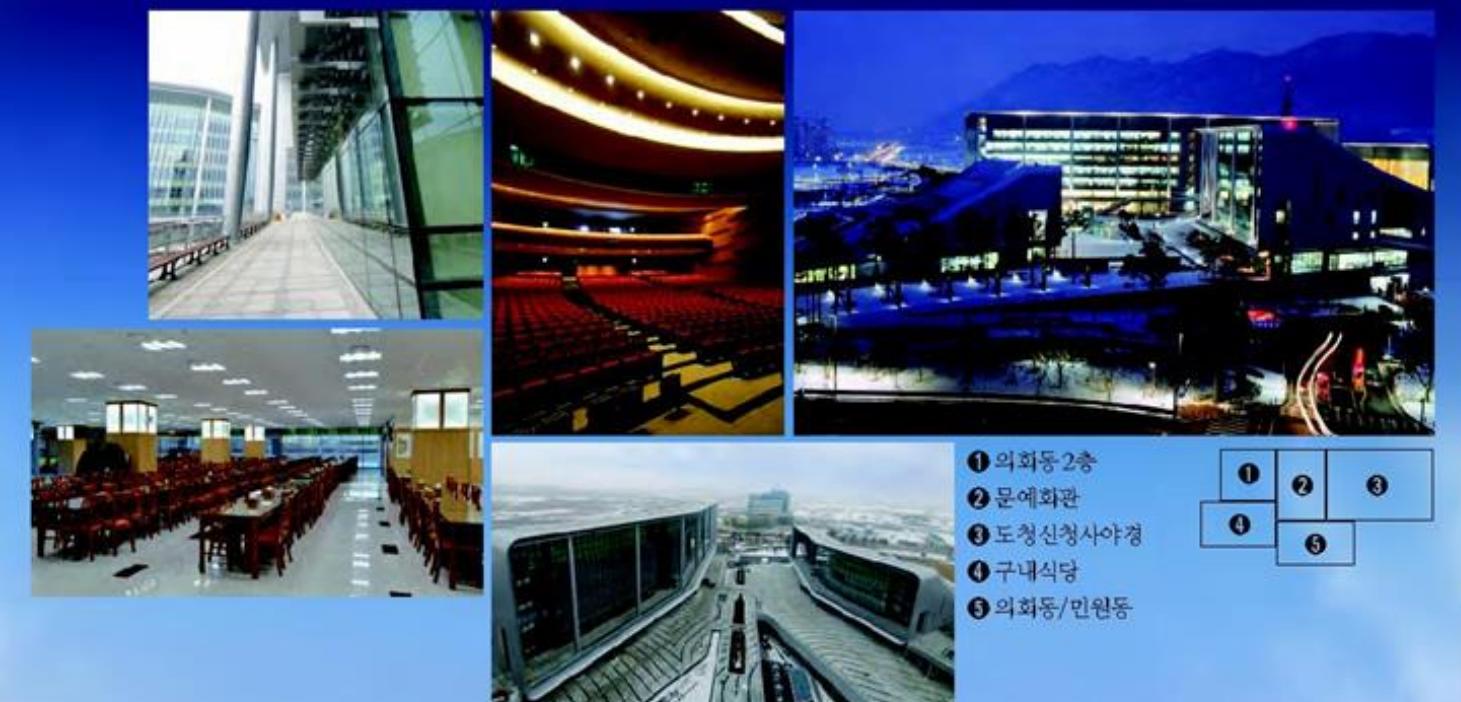


◆ 예산군 삽교읍 용동3리 노인회

"더 큰 충남으로의 도약"

도민 모두의 지속가능한 행복의 가치를 실현

내포신도시 신청사는 도정의 주인인 도민을 향한 열린 공간으로
 '행복충만, 충남'으로 가는 새로운 터전이 될 것입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며, 어른부터 아이까지 행복한
 21세기 충청남도의 미래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곳에 충청남도 의회가 함께 합니다.





3월, 4월에 열리는 즐거운 축제

계룡산 산신제

4. 25~28 (3일간) / 계동면 양화리 신원사 일원

**아산성웅이순신축제**

4. 26~28 (3일간) / 아산면 양화리 신원사 일원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4. 11~14 (4일간) /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일원

**계룡산벚꽃축제**

4. 12~14 (3일간) / 반포면 학동리 동학사 일원

**논산 딸기축제**

4. 3~7 (5일간) / 논산천둔치 및 딸기밭

**산꽃나라 걷기여행**

4. 20~21 (2일간) / 산안리 보곡산금 산꽃단지

**마곡사신록축제**

4. 27~28 (2일간) / 사곡면 운암리 마곡사 일원

**장고항실치축제**

4월~5월 중 / 석문면 장고항

**동백꽃 주꾸미 축제**

3월 경 (14일간) / 서면 마량리 동백정 일원

**무창포 주꾸미 · 도다리축제**

3월~4월 중 (24일간) / 무창포 해수욕장 일원

**장고항길치축제**

4월 중 / 석문면 장고항 일대

**2013 칠갑산문화축제**

4. 26~28 (3일간) / 청양지연 백세공원

**주산벚꽃축제**

4월 중 (3일간) / 보령댐 일원

**매화 벚꽃축제**

4월 중순 / 순성면 일원

**윤봉길문화축제 (도청이전기념)**

4. 26~29 (4일간) / 충의사 일원

**면천 진달래민속축제**

4월 중 (2일간) / 면천읍성 앞 광장 및 면천일원

**동산포항 주꾸미축제**

4월 중 (15일간) / 용산포항



"충청남도 의회 회의상황 생중계 방송시대 개막"

홈페이지 및 개인 모바일에서 의회방송 시청 가능

**인터넷 생중계 주요서비스**

도민에게 좀 더 편리하고 신속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남도의회 인터넷방송 모바일웹을 오픈하였습니다.

이제 어느 곳이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충청남도의회의 인터넷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래를 여는 희망과 강동의 의회가 되고자 도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충청남도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생방송 및 중계일정 정보 제공

**녹화방송**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녹화방송 서비스 제공**PC인터넷 방송****인터넷 생중계 시청 방법 (PC에서 도의회 홈페이지 접속)**

- 도의회 홈페이지 (<http://council.chungnam.go.kr>) 접속
-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접속 (<http://webcast.chungnam.go.kr>)
- 스마트폰에서 '충남도의회 인터넷방송' 검색 후 접속
- 스마트폰 브라우저 주소창에 <http://webcast.chungnam.go.kr>을 직접 입력하여 접속
-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속

